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알링턴 교구 주교님 부활절 메세지



DIOCESE OF ARLINGTON

Office of the Bishop

200 North Glebe Road, Suite 914 • Arlington, Virginia 22203 • Office (703) 841-2511 • Fax (703) 524-5028

Easter 2026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esus Christ is truly risen, Alleluia! It is with great joy that I wish you a blessed Easter.

On that first Easter morning, the angel asks the women who had come to the empty tomb: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has risen”* (Luke 24:5). This proclamation continues to echo in the world today. These words remind us that Christ is alive and present, enlightening every darkness.

Easter i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Through his passion, death, and resurrection, our Lord has opened the way to new life. The cross reveals the depth of God’s love and the empty tomb reveals God’s saving power. No burden is too heavy, no wound too deep, that our Lord cannot divinely heal and so transform our lives.

Easter, of course, is not a single day but a sacred season. I encourage you to begin each day with renewed faith. He is alive and with you and will lead, guide, and protect you. With abiding trust, commit your life to him and consistently and enthusiastically practice and live your holy Catholic faith.

May Our Risen Lord Jesus bless you with his peace throughout the Easter season and always.

Sincerely in Christ,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알링턴 교구 주교님 부활절 메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큰 기쁨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부활 인사를 전합니다.

부활절 아침, 천사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루카 24,5)

이 기쁜 선포는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어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 안에 희망과 믿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심을 전해 줍니다.

부활은 하느님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빈 무덤은 하느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이나, 깊은 상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하루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살아 계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굳건한 신뢰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거룩한 신앙 안에서 기쁘고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시기 동안,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을 담아,

성유 축성 미사



지난 3월 31일 (화) 오전 11시에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30여명의 신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Missa Chrismatis, Feria V Hebdomada Sancta)는 사제단이 수품 때 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하고, 한 해 동안 사용할 병자 성유와 예비 신자 성유를 축복하고 축성 성유를 축성하는 미사입니다. 이 미사는 성주간 목요일 낮시간에 드리며 주교님이 소속 사제단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합니다.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3/22)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부활 아침은 부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사랑으로 내달리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발걸음에서 부활은 시작됩니다.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은 이미 한쪽으로 굴러져 있습니다. 주님은 돌무덤을 깨뜨리고 만장을 휘날리며 오는 개선장군이 아닙니다. 라자로의 소생처럼 부스스 일어나는 강시도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당신을 죽인 이들에게 나타나 “네 이놈들”하는 복수극 놀이도 아닙니다. 주님은 평상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쉽게 알아봅니다. 부활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부활 아침은 부산합니다. 새벽녘에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달렸고, 막달레나의 전갈을 받고 두 명의 제자도 무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함께 달렸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복음은 사랑이 먼저 앞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현장 목적은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주님 부활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시신 탈취사건으로 결말을 내려 합니다.

빈 무덤에서 베드로는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찔던 수건이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덧붙입니다. 머릿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다는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시신 탈취자가 머릿수건을 따로 잘 개켜놓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 사건은 증거만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 등을 따져도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살아 계실 때의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 말씀을 기억해 내고 ‘아! 맞다. 그리 말씀하셨지’하며 무릎을 치게 됩니다.

막달레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아야!”하고 주님이 부르자 그때 비로소 알아봅니다. 그녀는 바로 “라뿌니!”하고 응대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살아생전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관건이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따뜻한 시선, 아픈 이를 일으키시고 빵을 집어주시는 그 손길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해맞이하는 부지런한 이들이 있어 새벽 동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불 속에서 잠에 취해 있다면 떠오르는 태양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부활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허나 사랑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신비입니다. 부활 아침은 조용하지만, 사랑으로 부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준배 아우구스티노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부활시기와 전례

부활 대축일은 신앙의 핵심이자 전례 주년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기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며 가장 큰 축일로 지냅니다. 부활 시기는 이러한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을 일컫습니다. 올해는 4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입니다.

50일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다음 50일 동안을 ‘주간 축제’로 지냈던 것에 기인합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축제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러한 관습을 따라 파스카 성삼일 뿐만 아니라 50일 동안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경축했습니다.

부활 시기 전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찬미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부르지 않았던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다시 부릅니다. 평일에도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인 부활초를 독서대 옆에 두고 불을 밝힙니다. 사제는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는 ‘백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라파엘 & 로고스 청년회 기부봉사



지난 3월 28일 토요일, 본당의 청년들이 사순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고자 라파엘 청년회의 주최로 알링턴 교구에서 진행하는 St. Lucy Food Project 사업의 일환인 Feed My Lambs Kit Service Project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파스타, 오트밀, 우유, 과자 등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의미있는 봉사입니다.

화창한 오후 모인 청년들은 필요한 음식들을 위해 각자의 기부금을 모아 60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직접 골라 구매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날 만든 60개의 패키지는 다음날 매나사스에 위치한 오피스에 전달되었습니다.

본 이벤트를 준비한 라파엘 청년회 이충원 바오로 회장은 이날 함께 해 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와 같은 활동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주님 부활 대축일 주간 모임 안내

- 4월 5일 (일)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오전 8시, 10시)
 - 부활 대축일 은총 잔치 (10시 미사 후)
- 4월 9일 (목)
 - 떼제 미사 및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새벽 미사 없습니다.
- 4월 10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 CYO Lock-in (저녁 6시)
 -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 Brother's Meeting (저녁 8시)
- 4월 11일 (토)
 - CYO Lock - in
 - 성모 신심 미사 (오전 10시 30분)
 - 새벽 미사 없습니다
 - 바오로 딸 성경학교 졸업장 수여 및 안수 (오전 10시 30분 미사 중)
 - 유아 세례 (오후 2시)
 - 페어팩스 1반 구역 미사 (오후 3시)

2. 부활 제 2주일 주간 모임 안내

- 4월 12일 (일)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 고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하느님의 자비 주일 기도회 및 미사 (오후 3시 30분)
 - 복사단 월례회의 및 피크닉 (오후 4시 15분)
 - 어버이 성서모임 개강미사 (오후 5시)
- 4월 17일 (금) :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 4월 18일 (토)
 - 꾸르실료 주최 골프대회 (오후 12시)

3. 봉헌 예물 봉투 변경 안내

- 4월부터 봉헌 봉투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봉헌시에 성명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투는 한 달 동안 동일한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봉헌하신 후 다음 주일에 사무실에서 봉투를 미사 전에 찾아 미사 중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4. 4월 봉성체

- 일시 : 4월 10일 (금) 오전 9시부터
- 문의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5. CYO Spring Lock- In

- CYO Spring Lock-In 신청을 시작합니다.
- 일시 : 4월 10일 (금) 저녁 7시
~ 4월 11일 (토) 아침 8시
- 장소 : 친교실, 하상관 체육관
- 신청 기간 : 3월 22일 (일) - 4월 5일 (일)
2시 미사 전후
- 신청비 : \$10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599-8869)

6. 바오로 딸 성경학교 졸업장 수여 및 안수

- 바오로 딸 성경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졸업장 수여와 신부님의 안수가 4월 11일 (토) 오전 10시 30분 성모신심 미사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에게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4월 유아 세례 안내

- 일시 : 4월 11일 (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4월 페어팩스 1반 구역 미사 안내

- 일시 : 4월 11일 (토) 오후 3시
- 장소 : 강대성 요셉, 강명옥 마리아 가정
- 문의 :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434-569-0099)
- 페어팩스 1반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핸드벨 연주곡 소개]



주님 부활 대축일 연주곡

입당

- 곡명 : 성가 83장 주 찬미하라 (Easter Proclamation)
- 곡해설 :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을 노래하며,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는 성가입니다. 밝고 힘찬 선율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담아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합니다.

영성체

- 곡명 : 알렐루야 (Alleluia)
- 곡해설 : 맑고 섬세한 선율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반복되는 밝은 선율 속에서, 영성체 안에서 주님과 마주하며 평화롭고 은은한 경배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9. 하느님의 자비 주일 기도회, 성체 강복 및 미사

- 일시 : 4월 12일 오후 3시30분 - 저녁 5시 미사
- 장소 : 성전
-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웃과 온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고자 예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0. 성체 조배 및 미사

- 일시 : 4월 18일(토) 오전9시 - 12시
- 9시부터 개인적으로 성체 조배
- 11시부터 성체 강복 후 미사

11. 동중부 꾸르실료 여성 교육 기금 위한 골프대회

- 일시 : 4월 18일 (토) 오후 12시
- 장소 : 프린스 윌리엄 골프 코스 (14631 Vint Hill Rd, Nokesville, VA)
- 접수 방법 : 매주일 8시, 10시 미사 후
- 동중부 꾸르실료 주관으로 여성 제19차 주말 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박기정 라파엘 간사 (703-862-0039)

12. BASH 신청 안내

- 교구내 모든 6-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BASH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견진반 학생들은 의무 참석이며, 6-8학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4월 25일 (토) 오후 3시 30분- 8시 30분
- 장소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 참가비 : \$15 (\$10-본당 지원, \$5- 개인 부담)

13. 제 87차 예비 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3일 (일) 오전 8시 30분 (하상관 110호)
- 등록 : 매주일 선교부 데스크 (오전 8시, 10시 미사후)
- 문의 : 빈은숙 스텔라 (412-523-1792)
-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 주님을 전하고 알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권면하여 성당에 나오실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 성당 친교실을 이용하신 단체 혹은 개인은 사용한 의자를 접어서 한쪽으로 정리해 주세요. 사용 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어 덕트 청소로 평일미사 및 시설 사용 변경 안내

- 본당 에어 덕트 청소 작업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평일 미사 시간 및 시설 사용이 일부 제한 혹은 변경됩니다. 교우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청소 기간 :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오전 8시 - 오후 6시 (토요일, 주일은 제외)
- 평일 미사 시간 변경
 - 4월 15일 (수) 오전 11시 → 오전 6시
 - 4월 22일 (수) 오전 11시 → 오전 6시
- 시설 사용 제한
 - 4월 13일 (월) - 4월 17일 (금) : 친교실 사용불가
 - 4월 20일 (월) - 4월 24일 (금) : 하상관 사용불가
- 청소 기간 동안 친교실 또는 하상관 사용 예정인 단체는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장소를 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용 장소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율 마감 기간은 4월 12일(일) 10시 미사 후 까지입니다.

15. 사무실 휴무 안내

- 에어 덕트 청소 기간 동안 친교실과 성당쪽 청소하는 기간동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사무실을 업무를 보실 수 없습니다. 사무실 이용에 오셔서 업무 보실 교우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4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유선 전화로 업무는 합니다.

성당 주차장 공사 안내

- 성당 주차장 도색과 라인 작업이 있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월 6일 (월) : 크랙 보수 작업
 - 4월 27일 (월) : 1차 코팅 및 라인 작업
 - 4월 28일 (화) : 2차 코팅 및 라인 작업
- 4월 27일 (월) 아침 미사 시 성당앞 주차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성당 뒤쪽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하실 수 있으시지만 성당 시설을 오랜 시간 잘 사용하기 위함이오니 모든 교우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6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약정 **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 기금은 교구내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기도와 희생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봉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도와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올해 본당 목표액 : \$200,000

BLA 납부 방법 안내

- 온라인 접수 : 교구 웹사이트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성당 명칭 입력시 St. Paul Chung으로 입력)
- QR 코드를 스캔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QR 코드 이용이 어려운 신자분들은 안내 장소에서 도움받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수표 : 배부해 드린 BLA 봉투에 넣어 성당 입구 BLA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Scan Me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봉헌금	\$8,942.00
교무금	\$6,700.00
교무금 (신용카드)	\$7,620.00
감사 헌금	\$400.00
온라인 봉헌	\$1,610.00
합계	\$25,272.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4월 9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4월 10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4월 12일 (일) 오전 6시 - 7시

1.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강론
2. CPBC 뉴스, SPC 성삼일 미사 하이라이트
3. 부활 편지: 김대우 모세신부
4. 하느님의 자비주일 의미

교중미사 예물봉헌

4/05 이번주	사도회
4/12 다음주	버크 3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